

노	동	동	향
---	---	---	---

경제일반

최효미*

◆ 실물경제지표 상승세 지속

- 2002년 12월의 산업활동은 생산과 투자는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는 상승세가 둔화됨(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기타 운송장비, 석유정제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5% 상승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기준)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 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하였으며, 내수 출하는 9.4%, 수출 출하는 8.3% 증가
 - 재고는 석유정제,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영상음향통신, 음식료품, 반도체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7로 전년동월보다 5.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0.3%포인트 상승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간재출하지수, 내구소비재출하지수 등 4개 구성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0.3% 증가(표 2 참조)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월에 100.7(1995=100 기준)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생산자출하지수, 산업생산지수 등 7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1995=100)

	2001			2002					
	10월	11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 산	-1.4	4.2	2.5	8.7	8.5	0.0	11.9	7.2	9.5
제 조 업	-1.6	3.9	2.0	8.7	8.8	-0.2	11.7	6.9	9.8
서 비 스 업	8.7	7.8	8.3	9.4	8.0	6.2	8.9	5.5	5.7
출 하	-0.9	5.9	2.9	7.3	7.5	1.1	12.3	7.1	9.1
재 고	4.3	1.5	0.5	-13.6	-11.9	-2.7	-1.5	-1.1	1.2
평 균 가 동 률	72.4	74.5	71.5	75.2	77.1	75.7	77.0	76.4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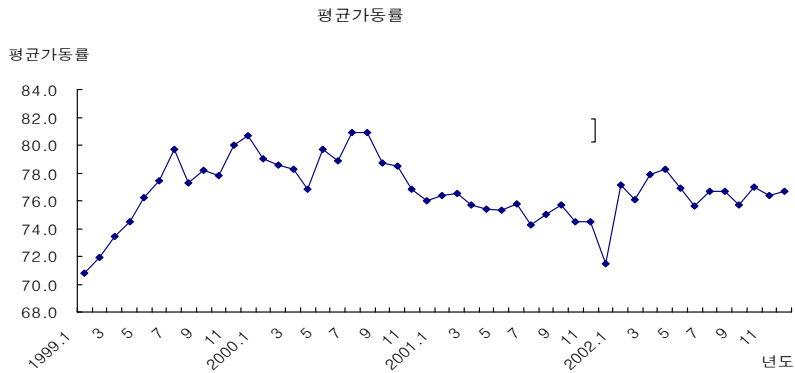
주: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12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2년 12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1.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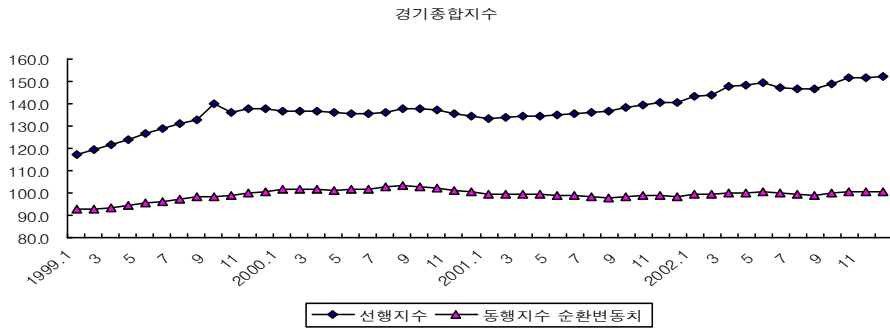
(단위 : 전월대비 %, 1995=100)

	2001			2002						
	10월	11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행종합지수	0.6	1.1	-0.2	-1.4	-0.3	0.0	1.5	1.5	0.1	0.3
동행종합지수	0.6	0.5	-0.4	-0.3	-0.3	0.1	1.1	0.8	0.5	0.5
후행종합지수	-0.2	0.0	-0.1	0.2	0.3	0.4	0.4	-0.3	-0.1	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7	98.9	98.2	100.0	99.4	99.1	99.9	100.3	100.5	100.7

자료 : 통계청, 『2002년 12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1.

[그림 2] 경기종합지수

(단위 : %, 1995=100)



자료 : 통계청, KOSIS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1월 중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과 유류가격 등 공업제품이 상승하였으며, 건강보험수가, 학원비 등의 서비스 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 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표 3 참조)
- 생활물가는 설수요 증가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4.0%,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2003년 1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5.1% 상승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0% 상승하여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됨.

- 농림수산물의 출하물량이 한파로 인해 감소한 데다 설수요의 증가로 과실류 및 채소류를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상승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등 공산품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으며, 건축설계·감리비 등 전문서비스 및 부동산 부문도 상승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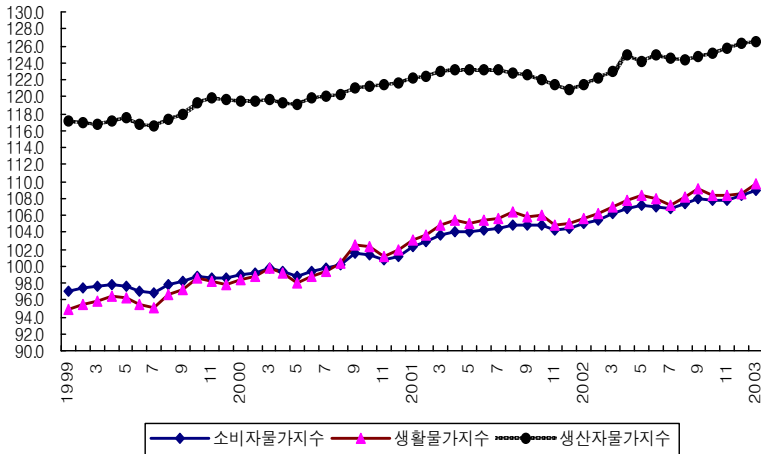
	2001		2002								2003
	11월	12월	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3.2	2.6	2.1	2.4	3.1	2.8	3.5	3.7	3.8	
생활물가 상승률	3.7	3.0	2.4	1.4	1.8	3.0	2.2	3.2	3.7	4.0	
생산자물가 상승률	0.1	-0.7	-0.6	0.9	1.6	2.2	3.1	4.0	4.6	5.1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2.

통계청, 『2003년 1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1.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 1995=100)



주 : 소비자물가, 생활물가는 2000=100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는 1995=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KOSIS.

◆ 수출입 증가

- 2003년 1월 중 수출은 143,3억달러, 수입은 144.4억달러로 87백만달러 적자를 기록 (표 4 참조)
 - 2003년 1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44.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 2003년 1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44.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3%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원/달러)

	2001	2002							2003
	12월	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 상 수 지	15.3	284.2	-12.7	150.9	459.7	1380.3	1,064.2	-	-
수 출 액 ¹⁾	11,914 (-20.4)	11,382 (-10.0)	13,395 (17.6)	13,959 (18.6)	13,901 (11.7)	15,085 (24.8)	15,197 (23.1)	15,026 (26.1)	14,332 (25.9)
수 입 액 ¹⁾	11,302 (-14.2)	11,326 (-8.9)	13,032 (17.3)	12,861 (13.4)	12,992 (10.9)	13,817 (20.1)	13,993 (21.3)	14,452 (27.9)	14,419 (27.3)
평 균 환 율	1,326.1	1,314.8	1,197.0	1,200.5	1,225.5	1,233.4	1,208.0	1,200.4	1170.5

주: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1월 수출입 실적(확정)평가』, 2003. 2.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노 동 동 향

노동시장

최효미·강승복*

◆ 실업률 3.5%로 동절기 들어 상승세 지속

- 2003년 1월 중 실업자는 789천명(실업률 3.5%)을 기록하여 전월의 702천명보다 87천명 증가(표 1 참조)
 - 방학을 맞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동절기 일거리 감소에 기인, 전월대비 49만명 감소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220천명) 증가한 21,562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22,352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14,809천명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1		2002			2003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경제 활동 인구	22,800(2.0)	22,416(2.1)	22,189(3.1)	23,037(1.0)	22,754(1.5)	22,352(0.7)
참 가 율	62.1	61.0	60.3	62.1	61.3	60.1
취 업 자	22,059(2.5)	21,628(2.8)	21,342(4.1)	22,389(1.5)	22,052(2.0)	21,562(1.0)
실 업 자	740	788	847	648	702	789
실 업 륜	3.2	3.5	3.8	2.8	3.1	3.5
비경제활동인구	13,925(-0.6)	14,336(-0.7)	14,602(-1.9)	14,057(0.9)	14,370(0.2)	14,809(1.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3년 1월 고용동향』, 2003. 2.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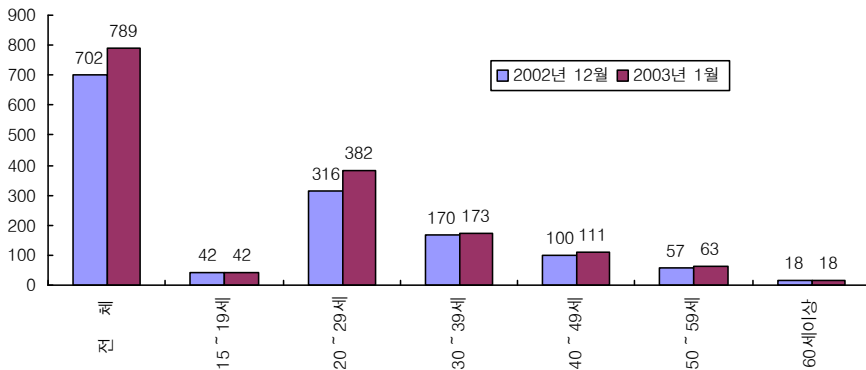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87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490천명 감소
 - 2002년 1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59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286천명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 60.3%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1.2%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

- 20대 실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66천명 증가(그림 1 참조)
 - 전월대비 실업률은 20~29세가 가장 큰 폭인 1.5%포인트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실업자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모두 감소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2003년 1월 고용동향』, 2003. 2.

◆ 취업자 감소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주도

- 전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490천명(-2.2%) 감소(표 2 참조)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6천명)에서는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
 - 농림어업에서는 전월대비 9.8%, 건설에서는 전월대비 5.6% 각각 감소

- 한편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220천명(1.0%) 증가하였으나,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66천명 증가
- 제조업에서는 104천명(-2.4%), 농림어업에서도 31천명(-1.9%)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표 2>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12	2003. 1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년동월대비
전 산업	22,052	21,562	-490	220(1.0)
농림어업	1,769	1,596	-173	-31(-1.9)
광업	17	16	-4	-4(-20.0)
제조업	4,240	4,144	-96	-104(-2.4)
건설업	1,805	1,704	-101	154(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01	6,027	26	22(0.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6,033	5,907	-126	166(2.9)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87	2,169	-18	18(0.8)

자료: 통계청, 『2003년 1월 고용동향』, 2003. 1.

◆ 12개월 이상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27천명 증가

- 2003년 1월의 구직기간별 실업자를 보면, 1년 이상 실업자는 전월보다 58천명 증가한 153천명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신규실업자는 전월의 49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1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7% 증가

<표 3>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2. 1	2002. 12	2003. 1
신규실업자	74	49	113
전직실업자	773	653	676
1년 미만	647	558	523
1년 이상	126	95	153

자료: 통계청, 『2003년 1월 고용동향』, 2003. 1.

◆ 임금근로자 고령화 추세¹⁾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도 2.7세, 2.8세 각각 상승(표 4 참조)
 -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1993년 39.1세이던 것이 2002년에는 41.8세로 2.7세 상승
 -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도 1993년에는 35.4세이던 것이 2002년에는 38.2세로 2.8세 증가
 - 2002년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10세 정도 높으며 1993년에 비하여도 3.0세 증가
- 4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으나, 29세 이하는 감소하는 경향
 - 경제활동인구 중 40세 이상 인구는 1993년에는 42.4%였으나, 2002년에는 53.5%까지 증가
 - 1993년에는 30~39세의 취업자가 30.8%로 가장 많았으나, 2002년에는 40~49세의 취업자가 28.0%로 가장 많음.

<표 4> 연령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평균연령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3	경제활동인구	19,879	38.9	13.6	13.6	30.4	20.1	14.8	7.5
	취업자	19,328	39.1	12.7	13.9	30.8	20.3	15.1	7.7
	임금근로자	11,794	35.4	19.1	17.7	31.4	17.4	11.1	3.6
	비임금근로자	7,534	45.0	2.7	6.7	29.7	25.1	21.3	14.5
2002	경제활동인구	22,560	41.6	9.2	11.2	26.0	27.6	14.9	11.0
	취업자	21,884	41.8	8.7	10.9	26.1	28.0	15.1	11.3
	임금근로자	13,780	38.2	12.8	15.2	29.0	25.1	12.0	5.8
	비임금근로자	8,105	48.0	1.9	3.6	21.1	32.6	20.3	2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3년 2월 가중치 보정 이전 자료).

-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 현상(표 5 참조)
 - 아직까지는 30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으나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40

1) 2003년 2월 중 통계청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1991. 1~2002.12)의 가중치를 보정한 바 있다. 현재 보정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으며, 본고에서는 기존의 가중치를 이용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대 임금근로자가 증가

—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도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38.2세

<표 5>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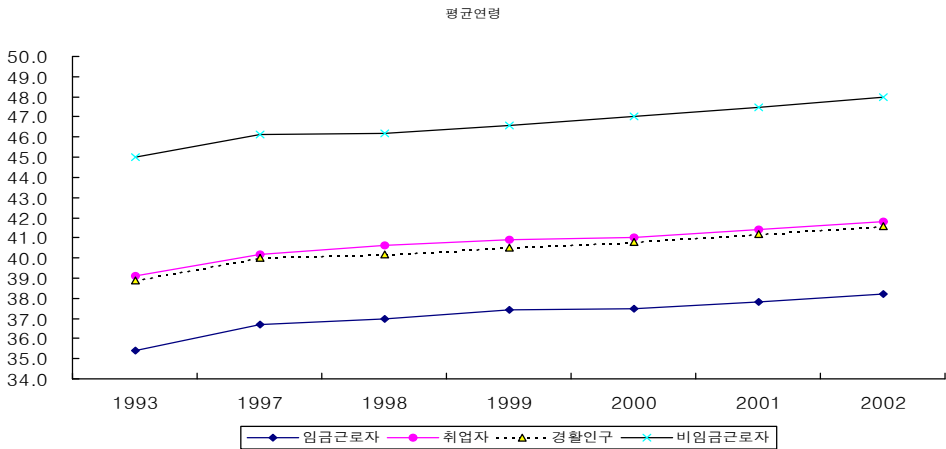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 체	평균연령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3	11,794	35.4	19.1	17.7	31.4	17.4	11.1	3.6
1997	13,226	36.7	15.9	18.3	29.5	19.4	12.0	5.0
1998	12,191	37.0	13.4	17.9	31.9	20.8	11.5	4.6
1999	12,523	37.4	13.1	17.1	31.3	21.9	11.7	5.0
2000	13,142	37.5	13.2	17.1	29.9	23.0	11.8	5.0
2001	13,339	37.8	13.1	16.2	29.3	24.2	12.0	5.3
2002	13,780	38.2	12.8	15.2	29.0	25.1	12.0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연도별 평균연령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사업서비스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 4.8세 증가²⁾

○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4세 가량 증가(표 6 참조)

—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에서 각각 3.9

2) 주 1) 참조.

세와 4.8세 증가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평균연령이 높아짐.

- 단, 국제 및 외국기관의 평균연령은 2.8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의 평균연령은 0.4세 감소
- 산업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령화 추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고령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 산업별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대부분 산업에서 30~39세의 임금근로자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2002년에는 40~49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
 - 다만 국제 및 외국기관은 1993년 50~59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2002년에는 30~39세가 크게 증가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또는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산업에서도 30~39세의 젊은 임금근로자가 증가

◆ 2002년 11월 높은 임금상승세 지속

- 2002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778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1.9%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5.6%보다 6.3%포인트나 상승한 것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850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상승
 - 11월까지 누계평균 임금총액은 1,89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
 - 2002년 11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정액급여, 특별급여 및 대규모 사업체의 높은 상승세 지속, 초과급여의 지속적 하락,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보험·부동산업의 높은 상승으로 요약
- 실질임금도 상승세 지속
 - 2002년 1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650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1%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상승률 2.2%보다 5.9%포인트 높은 것
 - 제조업부문 실질임금은 1,491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4% 상승
 - 11월까지 누계평균 실질임금은 1,77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상승

<표 6> 산업별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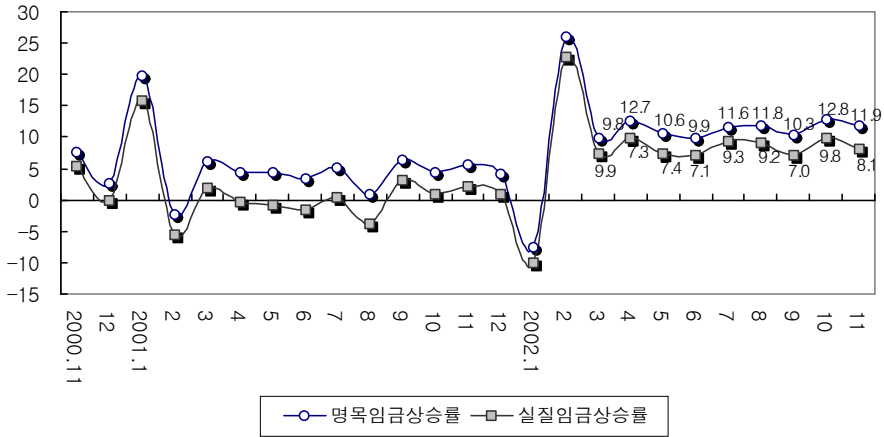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 체	평균 연령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3	농업 및 임업	142	51.4	3.5	3.8	15.0	18.9	26.2	32.7
	어업	54	40.8	4.4	8.9	39.9	24.1	16.7	6.1
	광업	46	41.6	6.7	6.6	30.2	29.8	23.4	3.4
	제조업	3971	34.3	18.7	19.4	34.7	16.6	8.6	2.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4	36.4	11.1	15.5	39.6	18.1	15.2	0.5
	건설업	1400	38.7	10.8	13.6	32.8	22.5	16.2	4.1
	도매 및 소매업	1392	30.2	33.9	23.8	27.7	8.6	4.4	1.7
	숙박 및 음식점업	617	36.1	19.5	12.2	32.9	20.3	12.1	3.0
	운수업	611	37.4	9.4	16.3	36.2	23.3	12.6	2.2
	통신업	130	36.5	8.8	13.4	45.0	20.2	11.7	0.9
	금융 및 보험업	615	33.9	21.1	19.1	33.2	17.5	7.4	1.8
	부동산 및 임대업	152	45.5	10.7	9.3	16.2	14.5	33.6	15.6
	사업서비스업	362	34.1	25.9	21.1	25.9	10.5	11.8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03	38.4	10.2	14.7	31.7	24.4	16.9	2.1
	교육서비스업	810	34.9	23.8	19.0	25.0	16.8	12.0	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4	30.8	35.2	26.5	20.7	8.3	6.7	2.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9	31.9	39.0	15.9	20.8	12.0	9.4	2.9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55	37.2	18.0	13.5	29.3	21.8	12.5	4.8	
가사서비스업	165	46.5	3.3	3.3	25.0	28.3	23.7	16.4	
국제 및 외국기관	22	46.5	6.7	5.8	12.0	22.5	46.7	6.3	
2002	농업 및 임업	130	55.5	3.1	1.1	10.8	16.2	18.9	49.9
	어업	30	45.7	0.3	4.4	22.3	36.1	27.3	9.7
	광업	16	44.9	6.9	8.5	4.2	44.3	30.2	6.0
	제조업	3,430	38.2	9.8	13.7	33.1	28.8	10.5	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9	37.6	4.9	17.0	37.2	28.5	12.3	0.1
	건설업	1,253	41.5	5.6	10.1	28.7	31.4	17.4	6.8
	도매 및 소매업	1,796	33.6	20.5	22.4	31.2	18.0	4.6	3.2
	숙박 및 음식점업	1,056	37.5	20.3	9.6	22.7	30.8	13.1	3.5
	운수업	689	40.6	6.1	10.5	29.1	33.0	17.6	3.7
	통신업	192	35.4	11.5	22.5	30.6	27.6	7.2	0.6
	금융 및 보험업	646	36.0	12.5	17.3	33.9	27.5	7.0	1.8
	부동산 및 임대업	259	46.8	6.3	8.6	19.7	19.8	19.1	26.5
	사업서비스업	1,043	38.9	12.3	21.2	26.4	13.7	13.9	1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9	42.4	3.8	6.6	30.7	32.7	20.8	5.6
	교육서비스업	1,042	35.8	16.9	21.3	25.9	21.7	10.9	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49	32.6	25.0	23.6	28.8	14.8	5.8	2.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17	31.5	35.3	20.5	21.7	13.6	5.2	3.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552	38.0	14.3	15.4	29.3	21.1	13.6	6.3	
가사서비스업	165	52.3	0.3	0.6	11.3	26.7	33.2	28.0	
국제 및 외국기관	18	43.7	2.9	15.2	24.0	20.4	23.7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표 7>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2000. 11		2001. 11		2002. 11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임 금 총 액	1,505 (7.6)	1,552 (7.6)	1,590 (5.6)	1,646 (6.0)	1,778 (11.9)	1,850 (12.4)
정액급여	1,190 (8.1)	1,204 (8.2)	1,270 (6.7)	1,287 (6.9)	1,425 (12.2)	1,451 (12.8)
초과급여	132 (6.2)	147 (6.1)	134 (1.6)	153 (3.7)	130 (-2.9)	149 (-2.7)
특별급여	183 (5.5)	201 (5.6)	186 (1.4)	206 (2.5)	223 (20.3)	250 (21.1)
실 질 임 금	1,493 (5.3)	1,540 (5.3)	1,526 (2.2)	1,580 (2.6)	1,650 (8.1)	1,716 (8.6)
소비자 물가	100.8 (2.2)		104.2 (3.4)		107.8 (3.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고용변화분을 제거한 고정임금상승률은 12.6%

- 라스파이어 가격지수를 사용하여 산업간 고용변화분을 제거한 고정임금지수 (2000=100)는 107.8로 산업간 고용변화분이 포함된 평균임금지수 106.6보다 1.2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2002년 11월 고정임금상승률은 12.6%로 나타나 평균임금상승률 11.9%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
- 이는 최근의 고용증가가 임금이 높은 산업보다 낮은 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표 8> 고정임금지수와 평균임금지수의 비교

(단위 : 2000=100, %)

	고정임금지수		평균임금지수	
	2000=100	상승률	2000=100	상승률
2000. 11	90.3	-	90.3	-
2001. 11	95.7	6.0	95.3	5.6
2002. 11	107.8	12.6	106.6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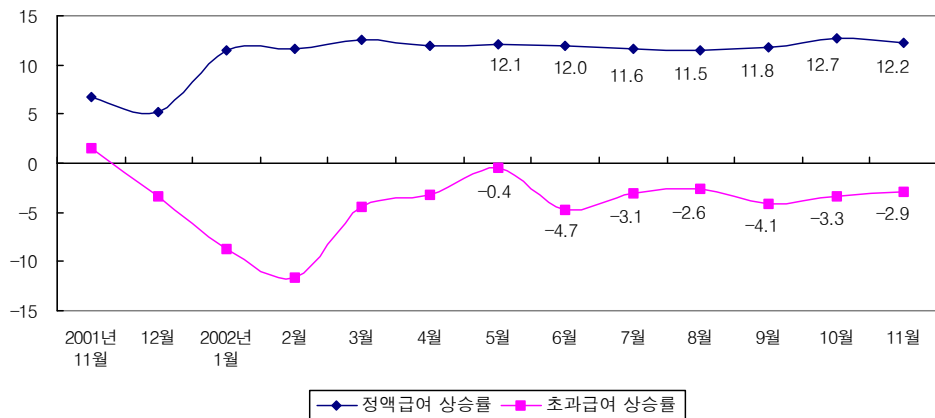
주 :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당월통계 자료를 사용.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각각 상승세와 하락세 지속, 특별급여는 대폭 상승
 - 2002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는 1,425천원으로 전년동월(1,270천원)에 비해 12.2% 상승하여 임금총액 상승률(11.9%)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초과급여 상승률은 2002년 11월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8.1% 하락함에 따라 하락세(-2.9%)를 지속하였고 특별급여는 20.3%의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
 - 특별급여의 높은 상승은 숙박 및 음식점업(165.6%), 운수·창고 및 통신업(103.3%), 금융 및 보험업(47.5%)의 높은 상승에 기인
 - 11월까지 누계평균으로는 정액급여 11.9%, 초과급여 -4.4%, 특별급여 11.3%의 상승률 기록

[그림 4]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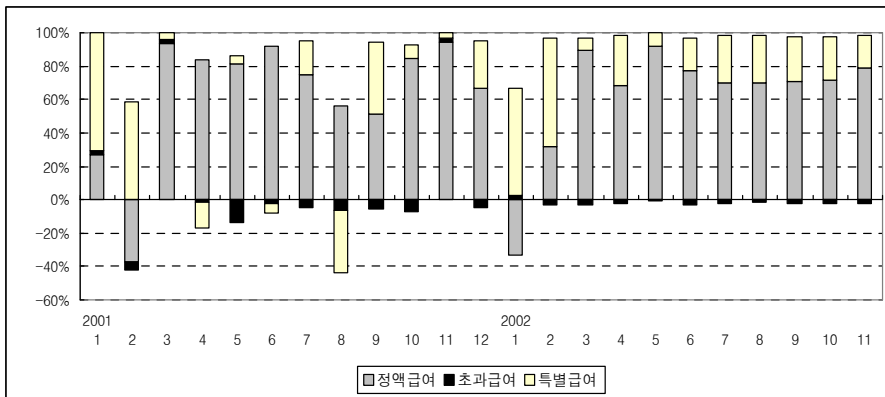
(단위 : %)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계속 주도

- 2002년 11월 임금총액 상승률 11.9%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82.1%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³⁾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2.0%로 나타나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20.0%를 기록
- 임금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은 변화가 심했던 2001년과 달리 2002년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임.

[그림 5] 임금총액 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 추이



주: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당월통계 자료를 사용.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 2002년 11월 시간당 임금은 13.9% 상승

- 2002년 11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8,233원, 6,982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3.9%, 11.9%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11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함에 따라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11월까지 누계평균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073천원, 8,09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12.1% 상승

3)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Delta TWG}{TWG} = \frac{\Delta RWG}{RWG} \frac{RWG}{TWG} + \frac{\Delta OWG}{OWG} \frac{OWG}{TWG} + \frac{\Delta SWG}{SWG} \frac{SWG}{TWG}$$

<표 9>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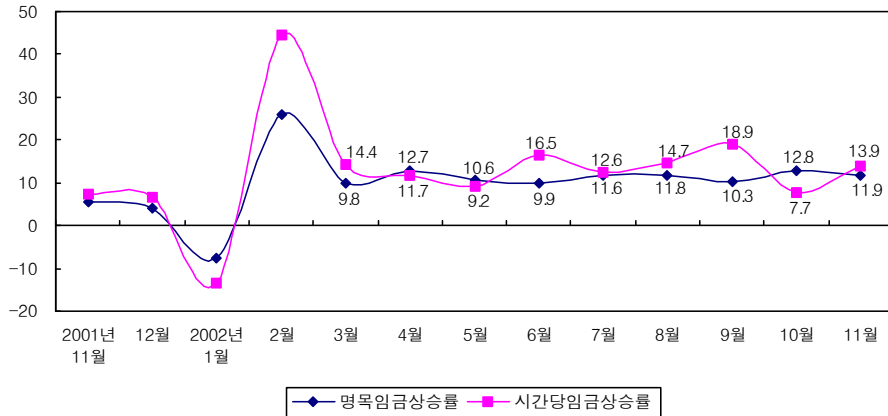
		2000. 11	2001. 11	2002. 11
전산업	월평균 임금(천원)	1,505 (7.6)	1,590 (4.3)	1,778 (11.9)
	시간당 임금(원)	6,738 (8.5)	7,227 (7.2)	8,233 (13.9)
제조업	월평균 임금(천원)	1,371 (7.4)	1,447 (5.5)	1,607 (11.1)
	시간당 임금(원)	5,809 (9.8)	6,241 (7.4)	6,982 (11.9)
최저임금(시간당, 원)		1,865 (16.6)	2,100 (12.6)	2,275 (8.3)
최저임금/시간당 임금비율(%)		27.7	29.1	27.6

-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4)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전산업 기준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각호.

[그림 6]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높은 임금상승률 기록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등이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주도
 - 2002년 11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8.4% 및 14.9%로 전산업 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반면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11.1%로 전산업 평균상승률보다 낮은 수치 기록

<표 10>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 11		2001. 11		2002. 11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업	1,505 (7.6)	1,552 (7.6)	1,590 (5.6)	1,646 (6.0)	1,778 (11.9)	1,850 (12.4)
제조업	1,371 (7.4)	1,393 (7.4)	1,447 (5.5)	1,473 (5.8)	1,607 (11.1)	1,637 (11.1)
건설업	1,560 (3.1)	1,670 (3.0)	1,633 (4.7)	1,773 (6.2)	1,768 (8.3)	1,949 (9.9)
도소매음식숙박업	1,368 (8.7)	1,434 (9.3)	1,486 (8.6)	1,584 (10.4)	1,621 (9.1)	1,691 (6.8)
운수창고통신업	1,712 (11.9)	1,743 (11.9)	1,700 (-0.7)	1,730 (-0.8)	2,014 (18.4)	2,060 (19.1)
금융보험부동산업	1,681 (6.7)	1,725 (6.7)	1,766 (5.0)	1,820 (5.5)	2,030 (14.9)	2,117 (16.4)
사회개인서비스업	1,643 (7.5)	1,761 (7.4)	1,767 (7.6)	1,899 (7.9)	1,952 (10.4)	2,129 (12.1)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두드러져

-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5~9인 사업체의 1.6배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100~299인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19.5%로 가장 높고, 10~29인 규모는 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5~29인의 소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규모 임금상승률(11.9%)보다 낮은 반면, 30인 이상 사업체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 규모간 양극화 현상을 보임.
- 전반적으로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100~299인 규모에서만 소폭 축소
 - 전년동월과 비교한 5~9인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7.6포인트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성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1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1.9%를 기록하여 여성의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4.6로 전년동월(64.7)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

<표 11>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 %)

	2000. 11		2001. 11		2002. 11	
		500인 이상=100		500인 이상=100		500인 이상=100
전 규모	1,505 (7.6)	84.2	1,590 (5.6)	83.0	1,778 (11.9)	80.6
5 ~ 9인	1,194 (6.5)	66.8	1,278 (7.0)	66.7	1,389 (8.7)	63.0
10 ~29인	1,363 (8.8)	76.3	1,503 (10.2)	78.4	1,604 (6.7)	72.7
30 ~99인	1,473 (8.0)	82.5	1,540 (4.6)	80.4	1,739 (12.9)	78.8
100~299인	1,571 (8.5)	87.9	1,631 (3.8)	85.1	1,949 (19.5)	88.3
300~499인	1,929 (16.9)	108.0	2,055 (6.6)	107.3	2,200 (7.0)	99.7
500인 이상	1,786 (5.4)	100.0	1,916 (7.3)	100.0	2,206 (15.1)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2년 들어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10월 이후 반대의 현상을 나타냄.

<표 12> 성별 임금상승률

(단위: 천원, %)

	2000. 11		2001. 11		2002. 11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전 체	1,505	7.6	1,590	5.6	1,778	11.9
남 성	1,693 (100.0)	8.0	1,785 (100.0)	5.4	1,997 (100.0)	11.9
여 성	1,084 (64.0)	8.4	1,156 (64.7)	6.6	1,289 (64.6)	11.5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
 3) ()안은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2년 11월 순입직자수 전월보다 증가

- 전월에 비해 입직자수 소폭 감소, 이직자수는 대폭 감소
 - 2002년 11월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입직자수(신규채용자수+전입자수)는 150천명, 이직자수(퇴직해고자수+전출자수)는 138천명으로 나타나 12천명의 입직자수 초과를 나타냄.
 - 전월인 2002년 10월과 비교하여 입직자수는 1천명 감소하였고, 이직자수는 15천명 감소하여 순입직자수(당월 입직자수-이직자수) 증가율은 0.2%를 기록

<표 13> 월별 입·이직자수

(단위: 천명, %)

	입직자수	입직률	이직자수	이직률	순입직자수	증가율
2001. 11	131	2.2	142	2.4	-11	-0.2
12	110	1.9	127	2.2	-18	-0.3
2002. 1	126	2.1	126	2.1	0.3	0.01
2	142	2.4	152	2.5	-10	-0.2
3	216	3.6	197	3.3	19	0.3
4	175	2.9	167	2.8	8	0.1
5	151	2.5	159	2.6	-8	-0.1
6	142	2.4	149	2.5	-7	-0.1
7	160	2.7	148	2.5	12	0.2
8	146	2.4	153	2.5	-8	-0.1
9	143	2.4	139	2.3	4	0.1
10	151	2.5	153	2.5	-2	-0.02
11	150	2.5	138	2.3	12	0.2

주: 입직률=(입직자수/당월말 근로자수)×100, 이직률=(이직자수/당월말 근로자수)×100, 순입직자수=입직자수-이직자수, 증가율=입직률-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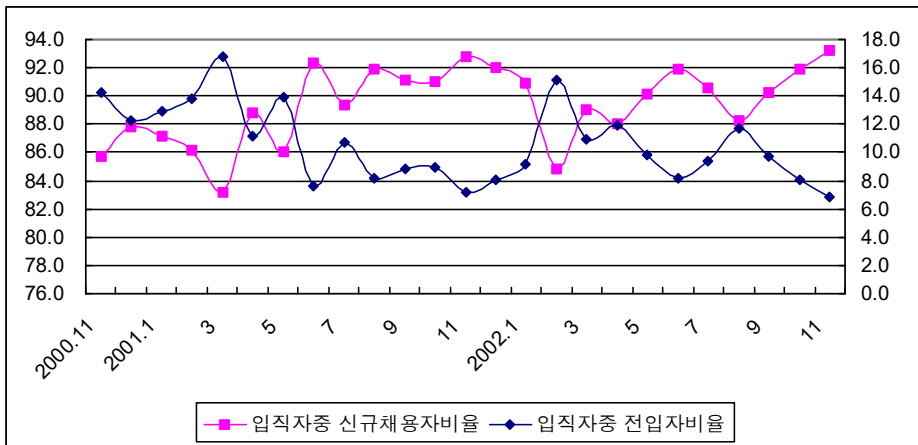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전월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은 상승, 전입자 비율은 하락

- 2002년 11월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은 93.2%로 나타나 전월(91.9%)보다 1.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입자 비율은 6.8%로 전월(8.1%)보다 1.3%포인트 하락

[그림 7]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 및 전입자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주: 1) 당월 전입자수=당월 입직자수-당월 신규채용자수.

2) 전입자는 동일기업체 내에서 지점간 이동 등 다른 사업체로 이동한 자를 말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재계산.

노 동 동 향

노사관계

이시균*

I.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

○ 2003년 1월 3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참가자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다소 감소 (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건과 비슷한 수준
- 분규참가자수는 1,3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62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8.4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7천명에 비해 다소 감소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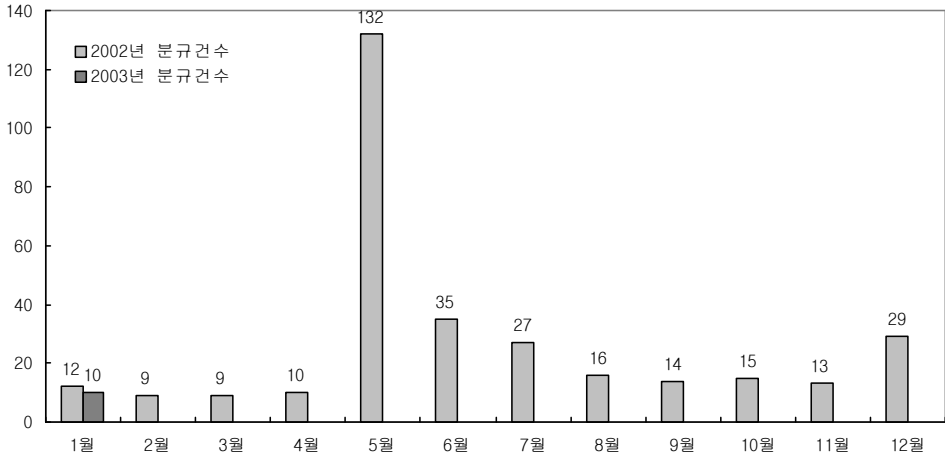
	2001. 1. 31	2002. 1. 30	2003. 1. 30
노사분규 발생건수	7	10<11>	11<10>
분규참가자수(천명)	280<3399>	1,162<732>	1,324<714>
근로손실일수(천일)	54.3	29.7	18.4

주: < > 안은 전년 이월분.

자료: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그림 2]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신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노동부는 2003년부터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신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공표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실업자, 구직자가 한 명의 상담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 등 모든 고용관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및 기간, 개인별 맞춤 구인·구직정보 등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 예상수급액 및 기간 등,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과정 안내 등, 취업알선은 개인별 맞춤 구인·구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금번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대기시간, 전화확인 비용, 우편요금 등이 절감되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절감되는 비용이 1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

- 그 동안 내부행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던 전산시스템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 중심으로 설계되고 개발된다는 데에 의의
- 노동부는 이러한 윈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3개의 전산시스템(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보험)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금년 2월부터 준비하여 2003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경총, 2003년 적정임금인상률 4.3% 제시

- 경총은 2월 7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3년 적정임금인상률을 4.3%로 확정
 - 경총은 2003년 적정임금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이라크 사태와 북핵위기,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성장세 둔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등의 고용안정 문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이 전산업 평균의 1.5배를 상회하는 석유화학, 금융·보험, 통신업 등에 속한 기업은 전년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권고
- 이와 함께 경총은 2003년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① 직무의 가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 구축 ②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③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④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시
- 경총은 이러한 내용의 임금조정 지침을 전업계에 권고함으로써 올해 임금교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
- 경총의 2003년 임금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수준에 밀도는 낮은 수치라며 크게 반발
 - 민주노총은 경총이 제시한 2003년 적정임금인상률이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수익성 수준에도 크게 밀도는 수치’라고 지적

- 민주노총은 국민경제 전체와 근로자의 실질임금수준 유지를 위해서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데, 2003년 경기전망을 볼 때 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 3%로 예상되는 만큼 4.3%의 수치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주장
- 이와 함께 경총이 제시한 임금조정 기본원칙 중 직무의 가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고 비판
- 한편 한국노총은 2003년 임금인상 요구율로 월평균 임금기준 11.4% 인상안을 확정하였으며, 민주노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1.1±2%의 임금요구안을 내놓고 있음.
 - 한국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은 근로자 가구원수 3.5인의 생계비(307만 402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 비중(68.8%)과 200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1.7%)을 고려한 생계비 214만 8,348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
 - 민주노총은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6명을 기준으로 2003년 표준생계비로 월 309만 8,000원을 산출하고 72%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1.1±2%의 임금인상을 요구

◆ 노동계, 2003년 사업방침 마련

- 민주노총은 2003년 2월 1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 총력투쟁과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
 - 민주노총은 2003년 사업목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조건 개악 저지’,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비정규직 조직화 등 조직화사업’, ‘산업별 임단투 공동투쟁 전개 및 산별노조 전환 확대’ 등을 제시
 - 민주노총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대 노동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와의 공식협상을 통해 ‘10대 노동개혁과제’를 요구하는 한편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 공동투쟁대책위’를 구성하여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
 -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임단투 투쟁은 6월 중순부터 시기집중투쟁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확정
 - 조직방침으로는 산업별 임단투 공동투쟁을 통해 2003년 말까지 조합원의 약 80%가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사

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경총의 사용자단체 확인을 위한 법적대응을 준비

○ 한국노총도 2월 26일 ‘2003년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과 개혁방안을 마련

- 한국노총은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개혁방안과 ‘노동운동의 주체역량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노동기 본권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정치활동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
- 한국노총은 장기적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5대 대산별로 조직을 재편기로 하고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 체제를 구축기로 하는 한편, 노동계 통합을 위해 양노총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통합을 전제로 공동건물 사용도 추진
- 또한 여성할당제의 단계적 도입 권고, 비정규직 노조 및 신규조직 노총 직가입 허용 등 개혁방안을 마련
-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시간 단축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법안의 재교섭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
- 2003년 임단투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 ‘임금,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 ‘경영참여 강화 및 고용안정 협약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저지’ 등을 단체협약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계획
- 2003년 임금인상 목표인 11.4% 및 주40시간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공동임투를 전개하고, 3월중 ‘천만노동자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섭 및 투쟁시기를 집중한다는 계획

◆ 두산중공업 노사갈등 심화

○ 두산중공업에서 분신사망 사건 이후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서 노사갈등 증폭

- 두산중공업 노사는 분신사망 사건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
- 민주노총과 ‘분신사망대책위’ 등은 2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분신사망의 원인이 된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중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 분신사망 사건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되자 노동조합측이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노사
갈등 증폭

- 노동부는 두산중공업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분신사망
대책위’의 거부로 무산되어 두산중공업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 ‘분신사망대책위’는 노동부의 중재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재안
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거부’ 입장을 전달
 - － 사용자측도 노동부의 중재안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노사타협
가능성은 낮은 상태